

젠더의 프리즘을 통해서 본 신여성의 삶과 글쓰기

김 은 하*

1. 다른 학문 영역도 그렇겠지만 특히 페미니즘은 폐쇄적인 강단에 머물거나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일용하는 정신적 양식으로 남아서는 안 될 것이다. 페미니즘은 진지한 학문 연구의 한 갈래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실천이라는 효과가 그 존재론의 차원에서 요청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인문학 전문서적으로는 드물게도 비교적 대중적 성공을 거둔, 최혜실의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는 고답적인 것이 되기 쉬운 학문 연구가 강단을 벗어나 학술 대중들 사이에 무리 없이 착륙한 사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이 이렇듯 가뭄하계 대중 속으로 진입한 데에는 세련되고 감각적인 디자인도 한몫을 했겠지만 무엇보다 이 책이 우리들 일상 현실의 가장 구체적이면서도 혼란스러운 키워드인 사랑, 성, 결혼, 친밀감, 모성 등에 대한 대중의 인식적 갈망을 적절히 담아 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나, 가부장제라는 두터한 벽에 온몸으로 부딪혔던 반역자이자 그것에 의해 참담하게 훼손되었던 신여성들의 지난한 삶과 문학이 이 책의 연구 대상이라는 점은 저자가 서문에서 지적했듯이 여전히 타자의 지위를 벗지 못한 우리 시대 여성의 현실과도 닿아 있어 탐색의 욕망을 자극한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의 여성들은 과연 한 세기 전 신여성의 풍파투성이의 삶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신여성들의 존재 자체

* 중앙대 문예창작학과 강사

는 페미니스트들에게는 여전히 무궁무진한 탐구의 욕망을 유발하는 원천 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여성학계에서 꾸준히 이루어진 신여성들의 인생과 글쓰기에 대한 축적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이 책은 개화기에서 1920년대까지에 이르는 여성 담론의 안팎을 총횡무진하며 근대 초기 여성 삶의 진실에 접근한다.

2. 이 책은 총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화기 근대정신과 자유연애 결혼’ ‘1910년대 소설에 나타난 사랑과 성’ ‘1920년대 신여성의 사랑과 고백’이라는 각각의 장 제목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에서 저자는 젠더(gender)라는 프리즘을 통해 근대와 여성 삶의 함수관계를 짚어낸다. 특별히 저자는 최근에 들어서야 진지한 학문 연구의 영역으로 떠오른 이른바 사적 공간에서의 내밀한 변화를 주된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사랑, 성, 결혼, 모성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의 경험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리를 통해 구축된 근대적 사회체계의 면모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를 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삶을 논하는 데 있어 이 성별화된 영역을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요긴해 보인다. 이 책은 이렇듯 사적 경험 세계를 대상으로 젠더와 근대의 관계를 탐구하며 근대 여성들의 삶의 지형도를 펼쳐보인다. 신여성들, 그것도 신여성 문학인들에 대한 연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조건 때문이기도 할 것이지만 이 책은 정통적인 문학 연구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신여성들의 삶에 대한 전기적 연구나, 당대의 담론적 구조를 분석하는 데 치중해 있다. 이로 인해 나혜석, 김명순, 김원주의 본격 문학작품만이 아닌 그녀들의 글쓰기 전체가 텍스트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본격적인 작가론이나 작품론이라기보다는 문학생산의 다양한 제 조건을 탐구하고 있는 문학사회학적 연구의 성격도 띠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개화기와 1910년대 근대정신의 정체를 성과 사랑이라는 담론이 구축되는 과정을 통해 짚어보고 있는 1, 2장은 이 책 전체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3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역할을 하고 있다. 신분제가 붕괴되고 최초로 여성 인권에 대한 자각이 시작된 개화기의 여성담론을 살펴보고 있는 제 1장은 이 시기의 여권신장론이 구시대와는 다른 형태이기는 하지만 현모양처 이데올로기의 연장에 불과하며, 자유연애에 입각한 일부일처주의 역시 “관념과 풍물의 차원”을 벗지 못한 것으로, 근대에 미달하는 형식이었다고 결론짓는다. 저자는 여기서 낭만적 사랑이 근대적 사랑의 전형이라고 규정한 뒤, 개화기 신소설을 통해 당대의 새로운 조류가 공리주의나, 서구적인 것의 흉내내기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저자가 당시의 낭만적 사랑의 성격이 근대적 형식에 미달하는 것이었다고 보는 이유는 개화기 신소설에서 그려진 사랑이 의리(윤리)의 차원과 모호하게 뒤섞이거나 육욕적 사랑의 성격을 띠는 열정적 사랑과 별개의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제2장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는 1910년대는 자유연애에 기반을 둔 핵가족 제도가 성립되는 등 전근대에서와 달리 사랑이 개인의 사적 영역에 속하게 되는 변화를 보이지만 전근대의 윤리관을 탈피하지 못한 것이어서 개화기 소설들과 본질적으로 차별성을 갖지 못한다. 이는 당시의 자유연애의 파수꾼이었던 이광수를 비롯한 남성 지식인 계층의 자유연애 결혼관이 가진 한계를 통해 검출된다.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결합으로서의 근대적 가족의 형성은 근대적 질서의 성립이 여성의 또 다른 타자화를 구축하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새로운 가부장질서의 탄생의 기초가 되는 근대 부르주아지의 결혼 이데올로기가 나타나 있는 텍스트가 최초의 근대적 장편소설로 꼽히는 이광수의 『무정』이다. 개화파 지식계층이 전근대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새로운 권력계층으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볼 때 『무정』에 나타난 부르주아 남성 중심주의는 우리 근대의 남성중심성의 기원을 엿보는 계기를 가져다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이 남성 지식인의 사랑과 결혼관이 혈통 유지의 방식과 욕망 충족의 방식을 별개로 규정하던 과거의 양반 계급보다는 한차원 나아간 것이지만 여성에게 결혼 전에는 여성적 매력을

결혼 후에는 모성적 자질을 요청하는 이분법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는 점에서 여성을 타자로 간주하기는 마찬가지라고 결론짓는다. 이는 낭만적 사랑을 통한 사적 영역의 창출이 실상은 공적 윤리와 질서를 확립하는 기제로 활용되었으며, 이때 여성은 근대의 또 다른 타자로서 규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 근대의 남성중심성과 불완전성을 보여주는 징표가 바로 낭만적 사랑에 대한 왜곡된 관념이라는 것이 저자가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다. 신소설에 나타난 의리로서의 사랑이나 1910년대 소설에 나타난, 사랑과 열정을 별개로 보는 시각이 그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이는 우리의 근대가 관념적 차원의 급진성에 머물렀음을 보여주는 증표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 식의 근대의 특수한 측면이기도 하겠지만 서구의 낭만적 사랑 역시 세속의 질서를 벗어나는 열정적 사랑과 일정한 거리를 갖으며, 이러한 낭만적 사랑이 성별을 중심으로 공사 영역에 대한 담당자가 구축되는 서구의 근대적 풍경과 아주 거리가 먼 것은 아니라는 점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듯하다. 문제는 서구적 모델을 갖대로 삼아 근대 초기의 낭만적 사랑의 이념이 그것에 부합하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것보다도 낭만적 사랑의 이념이 여성을 남성사회에 종속시키는 절차가 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이 더 요긴하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또한 필자는 근대화 초기 국민의 성과 사랑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의 변화가 “제도 속의 조형적 섹슈얼리티를 극복”(p.8·130)하려는 몸짓을 배태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형적 섹슈얼리티(Plastic Sexuality)는 안소니 기든스 특유의 개념으로 피임술과 재생산 기술의 발명으로 인한 전통의 제약으로부터의 성의 해방을 뜻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념에 대한 오인이 아닌 듯 싶다. 즉, 조형적 성이라는 개념은 전근대의 성별구속적 기제로부터의 탈피를 함축하는 것이어서 조형적 섹슈얼리티의 극복이라는 어법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3. 분량상으로도 1, 2장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는 3장은 이 책에서

저자가 가장 공들인 부분일 것이다. 3장은 여성작가들의 고백체 형식의 글쓰기를 대상으로 우리 사회 내부의 타자로서의 여성의 현실을 짚어내고 있다. 저자의 말대로 근대 이후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로 설정되었던, 식민지와 분단 상황의 극복이라는 모토 속에서 근대와 질곡의 역사 속의 이중적 타자였던 여성의 삶의 진실은 늘상 왜곡되거나 은폐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성의 이중적 타자성은 스스로를 최초로 성별 존재가 아닌 사회적 시민으로 규정했으나, 가부장제적 성별논리에 의해 ‘나쁜 피’를 가진 불온한 여성으로 규정되어 온 신여성들에게서 가장 잘 드러난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저자는 여성이 근대에서 타자로 구축되고 또 그것에 반발하는 복잡한 양상을 신여성 작가들의 고백체 글쓰기를 통해 검증한다.

여성작가의 고백적 글쓰기는 정통적인 본격문학 장르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남녀라는 성별을 떠나 일본으로부터 영향받은 사소설이나 고백체 글쓰기가 문학 풍경을 이루고 있었다는 점에서 “당대의 어떤 시대의식을 반영”한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이런 맥락에서 나혜석의 ‘이혼고백서’를 비롯한 세 작가의 자전적 글쓰기는 분명 문학작품에 속하지는 않지만 사소설적 문학행위의 일종으로 간주된다. 또한 고백형식은 성과 사랑 같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했다는 점에서 가부장적 성규범에서 일탈했던 신여성들이 고백체 글쓰기를 시도한 사회적 맥락을 알 수 있다. 즉, 저자가 고백체 소설에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푸코의 지적대로 고백하는 근대적 자아의 탄생을 통한 성의식의 효과적 통제 방식이라는 점에서 남성에 비해 더 큰 성적 억압을 받았던 여성들에게 은밀하게 강제화된, 가부장제의 억압성을 드러내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자는 여성 고백체에서 단순히 억압성만이 검출된다고 보지 않는다. 고백체에는 현실적으로는 패배했을지 모르지만 가부장적 규범에 대한 저항을 멈추지 않았던 신여성들의 반란의 목소리가 스며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 고백체 글쓰기는 “남성중심적인 근대적 논리”를 ‘전복’하려는 위반

의 언어로 고평된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저자는 나혜석에게서 모성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성적 주체로서의 여성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읽어낸다. 이는 「이혼 고백서」가 “확고한 논리이자 제도로서 근대를 이끌어가는 ‘사랑’을 근대 인답게 자아 속에서 절대윤리로 동조하여 동일성을 획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이 과연 참된 자기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회의하고 질문하”는 복합적인 심연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서 확인된다. 나혜석과 김명순을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도 예외는 아니지만 저자는 당대의 대표적인 남성작가인 염상섭과 김동인의 김원주에 대한 남근주의적인 비난에 저항하며 그녀의 일생을 여성의 관점에서 재구성한다. 사랑지상주의의 함정, 관념적인 여성해방관의 한계는 김원주 자신의 취약한 현실인식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는 당시 여성들로서는 아무런 답습할만한 바람직한 전통이 없는 사회에서 신여성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문제로 지적된다. 모성에 대한 김원주의 거부 역시 자아의 삶에 대한 김원주 자신의 내적 요청과 타자로서의 여성으로 살기를 요청하는 가부장제 사회의 화해할 수 없는 대립 속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당대 지식인 남성사회에서 대표적인 탕녀로 통했던 김명순은 소설의 딸, 미혼모, 작가, 여배우, 신경쇠약증 환자로 불행한 일생을 살다간 여성 문사이다. 저자는 그녀의 일생을 “가족제 도라는 사회제도를 지키기 위해 성이 어떻게 관리되고 규정되는가를 첨예하게 드러내는 몸의 정치학의 구현”이라고 규정한 뒤, 「탄실이와 주영이」라는 단편에서 김명순의 내밀한 고백의 목소리에 귀기울인다. 저자에 따르면 김명순의 신경쇠약은 강간당하고 버림받음이라는 김명순의 트라우마의 소산으로 순결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여성이 정상적인 자기에를 갖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로 읽는다. 김명순의 고백은 가부장적 아버지가 군림하는 조국에 의해, 조국을 위한 시민이 되리라는 애초의 목적을 좌절당한 후 자기 자신 속으로 들어간 훼손된 여성의 내면세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저자는 김명순의 광증의 이면에는 남성에 의해서 여성의 성이 통제되고 관리되는 가부장제의 폭

력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신여성들의 패배를 곧 가부장제의 억압성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렇듯 저자는 세 명의 신여성 작가들의 고백적 글쓰기를 대상으로 성과 권력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구도를 통해 저자는 근대 역시 여성에게 해방자이기보다는 또 다른 억압자였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스스로가 전제하고 있듯이 이러한 신여성의 불행한 삶의 기록을 단순히 피해자 페미니즘이라는 일면적 관점에서 논구하려고 하기보다는 저항과 위반이라는 관점에서 읽어내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애초의 시도는 언어적 진술 차원에 머물렀을 뿐, 김원주나 김명순에 대한 분석에 오면 실종되어 버리고 만 듯하다. 여성작가의 고백체 글쓰기에서 그녀들의 전복적 목소리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전기적 구성에 머물거나 당대의 여성작가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치우치지 말아야 하며, 이들의 문학 행위에는 위반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는 식의 주장에 머물 것이 아니라 그녀들의 글쓰기 자체가 가지는 복합성에 더 주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또한, 이 책의 목적과 무관한 요청일지는 몰라도 전기적 논평보다는 그녀들 작품의 여성문학적 의의를 밝히는 데 이 글의 목적이 두어졌다면, 저자가 지적하듯이 신여성작가들에 대한 연구가 사생활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해 사생활에 대한 관심으로 종결되는 관행을 깨뜨렸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다.

4. 저자 자신이 서문에서 절곡한 언어로 밝혔듯이 이 책은 글쓰는 이 자신이 스스로의 젠더 경험을 통해 연구 대상과의 거리를 좁히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이 책의 배면에 깔린 신여성들에 대한 저자의 감정이입이 바로 그 증거일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이 책을 형식화된 논문의 틀을 벗어나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연구서로서의 완성도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듯 보인다. 체계적이지 못한 장 구성과 3장의 경우, 다른 장과 달리 결론이 없다는 형식적 문제점 이외에도, 취약한 논리성 등을 한 계로 지적할 수 있을 듯하다. 공감을 넘어 근대와 젠더가 관련맺는 제

양상에 대한 좀더 체계적인 분석들, 즉 여성 작가들의 글쓰기 전반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읽어내는 좀더 새롭고 탄력적인 독해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다. 저자는 신여성들을 피해자라는 손쉬운 이름으로 가두어 두는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실상, 이 책 역시, 그녀들을 피해자 페미니즘 이상의 구도 속에서 조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종종 모든 것을 여성이라는 성별의 운명으로 돌리는 환원주의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백체 글쓰기를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여성의 고백체 글쓰기에 대한 규정은 미흡하기도 하다. 이론적 규정의 철저함이나 새로운 분석 언어의 개발은 단지 저자만이 고민해야 할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제 신여성 연구를 비롯한 제반 여성문학에 대한 연구가 일정한 수위에 오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여성문학 연구 진영은 여성문제를 발견해 내고 설명해내는 세련되고 감각적인 수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단순하고 당위적인 차원의 논의 틀을 얼마나 멀리 벗어났는지는 의문이다. 이 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 사랑이라는 코드를 통해 젠더와 근대성의 관계를 짚어 보려한 참신한 시도라는 점에서 신여성 연구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